

AUTHOR 한동석

TITLE 일본 개혁주의의 강해설교와 성경해석

IN 월간고신

68호 (5, 1987): 30-35.

69호 (6, 1987): 48-51.

# 일본 개혁신주의의 강해설교와 성경해석

## 시작하는 말

**현대** 신학에서 말씀의 전달(message) 그 시대적인 연관성을 강하게 묻는 것과 때를 같이 한 설교가 지닌 신학상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즉 신학에 있어서 교리학과 설교의 관계는 똑같이 시대적 연관성이 요청되며 뿐만 아니라 설교와 신학을 구분짓기가 어렵다는 말들을 하고 있어 오히려 이 양자의 통일성마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그러나 교리학과 설교는 모두 동일한 목적을 지닌 것은 아니다. 다만 현대적인 전달(message)에다 그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교리학에 있어서의 전달은,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표상이 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설교에

있어서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신앙의 결단을 갖기 위한 도덕적, 인격적인 설득이 그 목적인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교리가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상이라고 한다면 설교는 그 교리에 대한 현대적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리학에 있어서 우리들의 태도는 현대적

인 관심에 전혀 무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여러시대의 물음에 귀를 기울여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내고 성경적 교리로서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개혁신주의의 신학체계의 발전이란 있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개혁신주의의 신학은 로마 가톨릭과 재 세례파와 알미니안 주의에 대결하고 또한 현대 자유신학들에 대처하여 그 신학체계를 역사적으로 전개하는 등 재정비 하여 왔던 것이다. [이상은 "역사적 텍스트(text)에 의거한 설교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쓴 전고배 개혁과 신학교 확장 의 논문집(p.2, 3) (1975년도)에서 인용했다.]

이와 같이 교리학에서도 현대적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개

혁신주의의 설교라고 하여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관계와 함께 변혁 발전되어 가고 있는 현대신학 경향에 무관심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 제 나름대로의 출신과 세워진 자리를 달리하며 지금까지 흘러 내려온 전통과 환경에 따른 신앙적인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현대의 추세를 전혀 무시해 버리고 재래적인 자파의 신앙 전통에 불합적 구태의연한 형태의 설교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되면 설교자와 그 개인은 물론, 그가 속해 있는 교회와 교단까지 큰 손해를 초래할 것은 명확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베신학교에서는 실천신학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이 설교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연습하던 학생들의 설교를 필자가 보고 들은 적이 있다. 그때 하셔도 교장 선생님께서 부터 그곳 학생들의 설교에 관한 평을 부탁받고 자신도 모르게 심한 후평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학생들의 설교와 내용은 철저한 개혁신주의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교파로 자처하는 그들의 고집때문인지 약 30~40분간의 설교에서 평균 20회 이상의 성경 본문인용과 많은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설교를 한 후배에게 일일이 "대단히 수고했습니다"라는 일본인 특유의 예절에 따른 인사를 나누긴 하였으나 나로서는 그 지겨운 강해설교가 못마땅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신학강의 중 가장 어려운 강의를 듣는 듯한 딱딱하고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신학강의를 듣는듯 딱딱하고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강해설교를 접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 없는 듯한 강해설교를 듣게 되는 것은 (사실 그들이 섬기는 교회측에서도 항의가 번발하였음)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것은 개혁신주의의 교회에서 시도되는 본문강해 설교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설교자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경험하며(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남의 나라에서 후배들의 설교 연습을 들은 후 초면에 심한 후평을 했던 필자 역시 지난날의 30여 년간 목회중 같은 과정을 밟고서 그러한 영역에서 벗어나고자 무척 애를 쓴 장본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성경 본문과 열심히 씨름하면서 어려운 난해절에 부딪칠 때마다 고달픈 심신의 피로를 무릅쓰며 거듭 정기적으로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일과 전하는 일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교리에 맞추어서 신앙에 적용시키려고 일본에까지 신학연수차 가야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이제 겨우 강해설교에 대해 초년생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강해설교를 시도하는 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겪게되는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자기 스스로 모두 겪은 후에야만 올바



신비주의자들이나 기타 사이비 이단자들  
에게는 강해설교의 고통은 있을 수 없다.

른 강해설교를 할 수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글은 특히 일본 고베에 있는 후베들의 강해설교 실습생들을 위해 쓰기로 했던 것이다.

그럼 왜 강해설교를 시도하려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와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야만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본문에 대한 유일무이한 규범이므로 그 말씀(text)의 본문만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 오직 성경만을 전해야 한다는 개혁주의의 강해설교자의 의무감이 이런 고통을 겪게 만든다고 할 수가 있겠다.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며 하나의 도덕적인 모범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나 하나님과 사람의 신인동체를 주장하며, 시도하려고 말씀을 심리적으로 황홀한 경지에 들어가게 하는 수단

으로 사용하려는 신비주의자나 기타 사이비 이단자들에게는 강해설교를 시도하려는 자들이 가지는 고통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은 성경 그대로 전달해야만 한다는 개혁주의의 성경관을 토대로 한 참되고 충성된 설교자들만이 이런 영적 고통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주관으로 잘못 해석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그의 신앙양심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영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늘 숙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성경본문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 해석의 원리로는 성경비유사(Analogia Scriptura)의 원리에 의한 강해를 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도달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의(Sola Scriptura) 강해

설교라는 이 난 코오스를 모두 주파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아래서 필자는 여기 개혁주의의 강해 설교와 개혁주의의 성경해석 원리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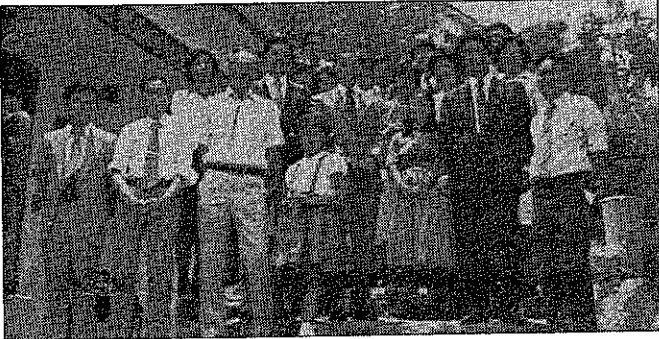
## 강해설교란

강해설교는 성경해석과 적용을 중점으로 한다. 즉 강해설교란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라 하겠다. 개혁주의의 강해설교의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일본 전 개혁파 신학교 교장이었던 오시오카 목사가 「역사적 텍스트에 의한 설교에 관하여」라는 그의 논문집 서론에서 말했듯이 성경은 단순히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을 가지고서 성경을 올바르게 강해하는 것이 강해설교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설교가 강해 설교의 형태를 취하였고 고 해서 그 설교 자체가 오직 성경만으로서 되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설교는 설교의 전달이 설교자 자신의 성경 해석인 것이며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설교자의 주관적인 견지의 설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교자에 의해서 작성된 강해설교가 오직 성경으로 되어지는 원리 그 자체는 설교자가 말씀의 해석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거기에 충실하는데 있다. 그 이유는 강해설교는 오직 말씀으로만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거듭말하자면 개혁주의에서는 「성경의 명확성」

이란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의해서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나가 해석할 수 있는 원리란 곧 성경을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이것을 아나로지칼 스크립처(Analogical Scripture)라고 한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9절에서도 「성경 해석의 무오의 규준은 오직 성경 자체인 것이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어떤 해석이나 참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의 일치된 해석이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참되고 완전한 해석에 의문이 생겼을 때 더욱더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다른 곳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찾아내어 알 수 있게끔 해석되어지지 않는다면 참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기독교 교회사적인 견지에서 한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AD. 313년 경 아리우스파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정통교리를 전복시키려는 의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낳으신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기독교 전체를 근원에서 부터 파괴시키려고 운동을 전개하여 그 당시 교회들은 큰 위기에 직면하였었다. 이때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 최초로 기독교 세계대회인「니케아」종교회의를 소집하였으며 동서 로마의 자치령에 속해 있던 모든 교회의 대표인 감독과 장로들은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랜 시간동안 감론을박 논의하였으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문제는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하였다. 그후 알렉산드리아의 알



일본「오사카」국제  
공함이 있는 「니가와」  
가와」시에 있는  
「다카라즈카」  
교회에서 주일  
오전예배 후에  
그 교회 교인들과  
함께

백산더 감독의 서기로 수행하였던 아타나시우스가 「기독교 구속에 관한 교리」 곧 「로고스의 성육신에 관한 교리」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그의 구속과 연관시켜 하나님과 동질의 신으로서 완전한 사람을 입지 않고서는 인류의 구속을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아리우스파 이단을 꺾었으며 결국은 역사적인 니케아 신조를 작성하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올바른 기독론을 확립시켰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한가지 신조나 교리가 확립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모든 시대적인 진리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인하여 신앙고백이 행사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체계가 확립된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기독교는 시대에 따라 많은 이단의 그릇된 신학사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진리가 왜곡되며 오류를 범할때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찾게 되어 역사적인 우리의 신앙고백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오늘날의 신앙의 행사는 이러한 역사적인 신앙고백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해석의 원리는 「말씀에 의한 성경해석의 원리」(Analogical Scripture)라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자들은 성경본문을 통하여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으로 믿고서 그날 그날 자기속에 저축해 나가야 한다. 마치 컴퓨터의 기억장치 속에 자료를 입력시켜 필요할 때마다 올바른 해답을 찾아내듯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강해설교를 설교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일찌기 필자는 신학교 입학 초기에 신학생이던 누구나 교회를 맡아야만 했던 그 당시(고신 초창기)에 성경도 잘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맡아 가르친다는 모순된 경험을 한 것은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때엔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른다. 어떤 때에는 하루 종일 신학 강의를 맡고 있던 모 교수에게 본문해석에 관하여 질문을 한적도 있다.

그렇게도 어렵기만 했던 그 본문을 오늘에 와서 다시 읽었을 때 본문 해석 뿐만 아니라 훌륭한 강해설교까지 마음에 떠오르는 격세지차의 변화를 자신에게서 발견한다. 일본 개혁파 신학생들의 말이

떠오르는데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들은 어렵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10년 20년 30년 이후엔 우리들의 선배교사들의 훌륭한 영역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데 오늘에 와서 이들의 말은 정말 실감이 난다. 강해설교는 평소에 성경본문과의 씨름을 한 경력이 쌓이고 쌓여졌을 때 마침내 강해설교를 올바르게 할 수 있으며 필자 자신 또한 스스로 이러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다. 몇년전 서울모 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소집되었을 때였다. 마침 집안 사정으로 방청으로 늦게서야 상경하여 총회장소인 그 교회에 들어 섰을때 신학교 초창기에 고락을 같이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났다. 그는 필자를 보자 반가와 했으며, 필자에게 자신은 총회일로 바빠서 예배를 인도할 수 없으니 오늘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대신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필자는 누님의 성경책과 조카의 옷 한벌을 빌려 입고서 예배 시간까지 계속 기도로서 준비하다가 성경본문 갈라디아 4장 26~을 열고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그때의 결과는 전 신학교 교장 모목사님으로부터 그때 일을 꼭 적합한 설교를 하였다는 좋은 반응을 들 수 있었다. 이처럼 필자가 그날 갑자기 한 설교내용은 이 정통신학자인, 교수와의 의견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하였던 것은 올바른 역사적인 신앙고백을 토대로 하였고 그 말씀의 해석과 실제 생

활에 적용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말씀의 적용이란? 올바른 해석에 있어서 「성경의 유사」원리. 곧 성경은 성경으로만이 참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신앙의 유사」란 신앙 행사가 서로 같아졌을때 말씀에 대한 바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위필트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B.B Warfield) 제 1장 해석과 헨드릭슨(Hendrikson)의 「오늘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p 37, 38) 「말씀의 유사」원리란 「신앙의 유사」와 서로 같다고 하였다. 일찌기 저 문헌에서 전해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땅에 전하여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 시대적인 차이점에 있어 「신앙의 유사」로써 「신앙행사」를 올바르게 해야한다. 여기에서 신앙이란? 요시오카 시게루 목사가 말한바와 같이 신앙은 언제나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개혁주의의 강해설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호에 이어질 것이다. ♣



필자는 1956년 고려신학교를 졸업했다. 애런원교회 목사로 1979년 부터 '80년까지 일본 고베개혁파 신학교에서 실천신학과 선교학을 연수하였다. 그동안 그는 강해설교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 실천하는 열정을 보여왔다.

# 일본개혁신주의의 강해설교와 성경해석



필자는 애린원 교회 목사로 1956년 고려신학교를 졸업했다. '79-'80까지 고베 개혁신학교에서 실천신학과 선교학을 연구했다.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일찌기 전파되어 온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말씀의 현재화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옛날부터 전달된 그대로 말씀이 전파되어 진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문제가 남아 오늘날에 맞지 않으므로 순진한 양떼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게 된다는 말씀이다.

## 말씀의 적용이란

**말씀을** 옳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의 적용이 있어야 함을 전장에서 밝혔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주로 말씀의 적용에 관하여 살펴 보겠다.

현재 우리들이 텍스트(성경)로 쓰고 있는 이 말씀들은 1,600년의 긴 세월을 경과 해 왔다. 여기에는 오늘날과는 서로 다른 역사적 사회적 조건들이 포함되어져 있으며 인간적 특색 곧 과학문명 이전 세계의 진술들이 오늘의 과학문명 시대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의 옛 옷을 입고 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들임을 감안하여 오늘에 맞는 말로서 번역하는 일이 말씀적용의 첫째 과정이라고

## 실제적 예들

사도바울 당시엔 기혼 여성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표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던 당시의 습관이 있었다(지금은 모슬렘 교도들에게 남아 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회에서 믿는 가족들의 퇴폐풍조를 예방하기 위해 이 습관을 그대로 존속시켰던 기사가 있다(고전 11장 1-16).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주는 필요한 교훈은 바울사도의 권면의 원리를 받아 들이는 것이지 옛날 그대로 수건을 써야만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메마른 땅을 밟고 다니던 그들은 샌달이라는 신을 신고 다녔다. 때문에 집에 들어 갈때는 반드시 발을 씻는 습관이 있었다. 예

수님께서는 이런 지방적인 습관을 이용하며 겸손과 사랑과 봉사의 원리로 발 씻는 일을 실행하셨다. 그리고 그대로 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다(요한 13:1-17, 34, 35). 이 본문중 집에 들어갈 때 발 씻는 행위 그 자체는 샌달을 신지 않는 생활환경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일이라 하겠다. 발을 씻는 예나 얼굴을 가리며 수건을 쓰는 예는 당시 그 지방에서 통용되던 하나의 평범한 사실 들이기는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 문자적으로 짐작하면 성경의 원래 뜻이 잘못 오해 되기가 쉽다.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우리 성경 본문은 과학이전의 말로 쓰여졌으며 그 때문에 과학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기록 이라고 단정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 이런 일들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작업이 고대의 말을 현대의 말과 뜻으로 번역하는 일이라 하겠다. 시대적인 격차로 인해 빚어진 자세한 일들을 두고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랜 전통의 성경 권위에 관련된 영감설 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반기를 들고서 갖은 행패를 부리는데 일반인은 물론 소위 보수 교회에 속한 회중들 중에서도 그 파동이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대인들에게 문제로 유발되는 성경의 옛 풍속, 습관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밝혀주며 이로인해 진리가 왜곡 또는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바로 현재화 작업, 즉 정확한 번역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일본 개혁주의 신학자 모리 목사는「성경은 영감에 있어서 성경 기자들에게 근대적인 이성까지 부여하지는 않았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질까지 변화시켜 주지 않았고 오직 성경은 역사적인 조건 아래서 개인에게 및 개인 생활속에 깊이 파고드는 진리의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성경은 필연적 살아 있는 인간들의 언어, 표상, 사고방식을 취하였던 것이며 하나님 세계의 어느 한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 인간 세계의 한 면을 들어내어 말해야 했으니 진리는 아나로지(류사점)로서 고하여 알려지게끔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번역(Translation)이 항상 뒤따라야만이 올바른 전달이 되겠다. (일본 개혁파 경도 전도소 목사 모리 이 야스지의 “현대와 그리스도교회” 팜플렛 p28에서 인용).

이와같이 강해 설교란 시대적인 역사성과 문제점들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서 기회있는 대로 거기에 관련된 문제와 본문 말씀을 현시대에 맞도록 적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복음의 전달에 있어서 청중들의 오해나 불신을 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유컨대 많은 식품을 갖은 재료로 잘 조리하여 식객들의 기호에 알맞도록 요리사가 요리를 만드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일류 요리사들은 같은 원·재료를 갖고서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 알맞은 영양으로 지방특유의 향취를 살려 고객들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요리하여 제공한다. 강해설교란 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본문을 언제나 세분하여 살을 불



인 것으로 변치 않는 방법의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친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을 자유자재로 활용, 적용시켜 모든 경우에 각기 다른-지금까지 받지 못했던-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그들의 생활 환경과 당면한 모든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강해 설교를 해야 하겠다.

### 일본인 교회와 한인교회 수준차 커

필자가 직접 체험한 일로서 일본에 있을 때의 일이다. 일년동안 강해설교의 실천학을 연수 중에 그곳 개혁파 신학교의 전교 학생 특별 기도회의 강사로 설교를 맡은 적이 있었다. 그 결과 일본교 오베 시가의 주요한 교회들의 요청에 따라 1980년 5월, 곧 부산으로 돌아오기 직전까지 일본인 교회들을 계속 순방하며 설교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때 강해설교의 본문은 에스더 4장 전부였다. 성

경 본문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실 즉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 한, 일 양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우상종교에 대처해야 할 교훈을 내용으로 한 강해설교를 한 것이다. 그 결과 반응이 의외로 좋았던 것은 첫째로 일본 교회가 강해설교에 대하여 평소애 듣고 자라온 신앙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둘째로는 자기들과 서로 다른 이교국인 한국인으로서 같은 개혁주의의 신앙의 유사를 함께 보게된 까닭이라고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특이한 것은 서로 다른 민족이면서도 옛 성경 본문의 강해내용이 저들의 경우와 꼭 같았던 까닭이라 하겠다. (일제 탄압하의 한국교회 형편과 오늘날의 우상종교와 싸우고 있는 현 일본개혁파 교회의 처지) 어쨌든 필자가 일본에서, 1979년 여름(7월)에서 1980년 여름(5월)까지 일년 동안 수준 높은 중요한 일본인 교회들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좋은 말씀의 교제를 갖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할 뿐

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동안 일본에 살고 있는 한인교회에서 필자가 위와 똑같은 본문을 갖고서 같은 강해설교를 시도했던 결과 한인교회는 일본인 교회에서 나타낸 반응보다 훨씬 신통치 않았다.

교배교회, 아끼시교회 및 동부교회 등 여러 교회를 순방하면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교회와 일본인 개혁파 교회에서 한 강해설교가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며 받아 들이는 자세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는 일본 교도교인들은 그들의 본국인 한국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서도 주로 특별집회 부흥식의 설교, 본문 위주의 제목 설교만 들어 왔음에 비하여 일본인 교회는 범성경적인 친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골고루 강해하는 강해설교를 들어온 것으로-지금까지 본문 한 곳을 읽고서 그 본문을 집중 풀이하는 식의 설교-바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이로 인해서 한인교회 교인들은 옛날 에스더 시대의 역사적 사실과 오늘날 만연되고 있는 시대적 사실을 서로 대조시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인식에 있어서 말씀의 유사와 신앙의 유사원리,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실생활면에 적용할 신앙의 행사를 하겠끔 하는 강해설교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나타내었다고 보겠다.

### 말을 맺으며

그러면 이 글을 매듭하는 뜻에서 위의

두가지 서로 다른 신앙 훈련의 설교가 주는 양상이 양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지 알아본다면 한인측 교회는 영의 양식을 편식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더욱 성장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일본개혁파 교회들은 질적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며, 설교자(목회자) 들의 측면에서 볼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양국 설교자의 자질향상과 지적인면에 있어서 서로 다른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들 수 있겠다. 사실,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일본인 목회자들에게서는 매우 심한 격차가 생겨나고 있는데 강해설교에 전력투구 하는 일본인 설교자들은 진리탐구 면에서 실력의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성서의 강해설교」라는 제목으로 일본도쿄 온초(은총) 교회의 사가기바라 목사는 개혁파 신학잡지 제 5권(1977. p53. 3항)에서 “연속 강해설교는 설교하는 목사 자신의 훈련과 교육이 된다”란 제목하에 한 말을 인용하며 말을 맺으려 한다.

“강해설교는 또한 설교자 자신의 기호에 맞게 텍스트(성경)와 특이한 제목에만 집중되지 않고 싫거나 좋거나. 성경으로만 말하게끔 되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에서도 목회자 자신에게 훈련이 되고 있다. 설교자 개인의 건방진 의견이나 주장이 나올 수 없는 이 점도 있을 것이다”(사가기바라 목사는 현재 개혁파 총회 3년 연속 총회장으로 있으며 강해설교의 권위자로 알려진 중이다). ❀